



한겨울의 추위도 녹이는 체육열기

공화국에서 매월 두번째 일요일은 체육의 날이다. 어느날도 그러하지만 이날이면 온 나라 각지에서 대중체육열기로 들끓는다.

지난 1월 12일, 새해에 들어와 첫 체육의 날인 이날 평양의 김일성광장은 이른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고 울헤에 대중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경체강국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갈 열의를 안고 모여온 내각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었다.

운동복을 가꾼채 차려입고 자기 단위의 간판을 앞세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농업성, 건설경제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꾼들은 출발구령이 내리자 두개 조로 나뉘어 여러 방향으로 집단달리기를 시작하였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튼튼한 몸으로 올해의 사업에서 성과

◆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

를 이룩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각오와 열정이 차 넘쳤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선동과 노래소리에 고무되어 웨치는 힘찬 구호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도 순간에 가셔 버리는듯 했다. -10℃를 오르내리는 1월의 땀만 날씨건만 줄을 맞추어 집단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양의 겨울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집단달리기가 끝난 다음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대중물체제와 건강태권도 모범출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평양체육관광장에서는 5 000여명에 달하는 시안의 대학생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모여 집단달리기와 건강태권도, 대중물체제 등으로 청춘의 기백을 한껏 시위하였다. 그옆에 위치한 로라스케트장에서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튼튼한 몸으로 올해의 사업에서 성과

를 이룩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각오와 열정이 차 넘쳤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선동과 노래소리에 고무되어 웨치는 힘찬 구호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도 순간에 가셔 버리는듯 했다. -10℃를 오르내리는 1월의 땀만 날씨건만 줄을 맞추어 집단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양의 겨울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집단달리기가 끝난 다음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대중물체제와 건강태권도 모범출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평양체육관광장에서는 5 000여명에 달하는 시안의 대학생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모여 집단달리기와 건강태권도, 대중물체제 등으로 청춘의 기백을 한껏 시위하였다. 그옆에 위치한 로라스케트장에서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튼튼한 몸으로 올해의 사업에서 성과

를 이룩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각오와 열정이 차 넘쳤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선동과 노래소리에 고무되어 웨치는 힘찬 구호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도 순간에 가셔 버리는듯 했다. -10℃를 오르내리는 1월의 땀만 날씨건만 줄을 맞추어 집단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양의 겨울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집단달리기가 끝난 다음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대중물체제와 건강태권도 모범출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평양체육관광장에서는 5 000여명에 달하는 시안의 대학생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모여 집단달리기와 건강태권도, 대중물체제 등으로 청춘의 기백을 한껏 시위하였다. 그옆에 위치한 로라스케트장에서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튼튼한 몸으로 올해의 사업에서 성과

를 이룩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각오와 열정이 차 넘쳤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선동과 노래소리에 고무되어 웨치는 힘찬 구호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도 순간에 가셔 버리는듯 했다. -10℃를 오르내리는 1월의 땀만 날씨건만 줄을 맞추어 집단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양의 겨울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집단달리기가 끝난 다음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대중물체제와 건강태권도 모범출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평양체육관광장에서는 5 000여명에 달하는 시안의 대학생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모여 집단달리기와 건강태권도, 대중물체제 등으로 청춘의 기백을 한껏 시위하였다. 그옆에 위치한 로라스케트장에서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튼튼한 몸으로 올해의 사업에서 성과

를 이룩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각오와 열정이 차 넘쳤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선동과 노래소리에 고무되어 웨치는 힘찬 구호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도 순간에 가셔 버리는듯 했다. -10℃를 오르내리는 1월의 땀만 날씨건만 줄을 맞추어 집단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양의 겨울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집단달리기가 끝난 다음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대중물체제와 건강태권도 모범출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평양체육관광장에서는 5 000여명에 달하는 시안의 대학생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모여 집단달리기와 건강태권도, 대중물체제 등으로 청춘의 기백을 한껏 시위하였다. 그옆에 위치한 로라스케트장에서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튼튼한 몸으로 올해의 사업에서 성과

신나는 탁구경기

* 룩해운성에서 *

바다물이 짙아 알자면 한방울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다. 마 찬가지로 룩해운성에서 일어변지는 체육열풍을 느낄 수 있다.

지난 일요일 룩해운성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탁구경기장면이 펼쳐졌다. 탁구장에서 만난 일꾼은 지금 단위원 탁구경기가 한창이라고 말해주었다. 며칠 전부터 진행되는 단위원 예선경기에서 이기고 올

가들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체육의 날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해주시의 경기장, 체육관에서도 도급기관들과 시급기관, 기업소들사이의 축구와 배구를 비롯한 종목별 대항경기가, 시안의 협동농장과 학교들에서도 대중체육활동과 체육소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 해신년사에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체육의 대중화,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데서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올해 첫 체육의 날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크다고 볼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올해 첫 체육의 날에도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이들의 얼굴에도 어디 한번 불어보자는 배심이 감돌고있었다.

《오늘은 우리를 이길수 있겠나?》

나이지숙한 해운관리국선수들이 던지진네자 《경기야 이기려고 하는거지, 어디 한번 불어보세나.》하고 여유있게 되받아넘기는 함판관리국선수. 그 말에 두 팀 선수들의 승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긴장하여 경기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 한점한점 점수가 오를 때마다 웅원석에서 터져나오는 환성과 아쉬움의 목소리들로 하여 탁구장은 떠들썩하였다.

기관안의 탁구열기가 보통 아니라는 우리의 말에 한 일꾼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정무원들속에서 탁구열의가 이만저만 아니라며 탁구칠줄을 모르던 전성동무들의 수준이 이제는 전문선수 못지 않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룩해운성에서는 주별, 월별로 세워진 탁구경기일정에 따라 일꾼들부터 앞장서 탁구를 치고있다. 그러니 기관안에 자연히 탁구에 대한 대

중적관심이 높아졌다. 흥미있는것은 선수본위가 아니라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게 경기를 조직하고있는것이였다. 이곳의 한 일꾼은 여가시간이나 일요일이 되면 드넓은 탁구장이 잠시도 비어있을새가 없다며 웃으며 말하였다. 자체로 꾸린 탁구장에서 마음껏 탁구를 치니 좋은점이 한둘이 아니였다. 기관안에 정서와 랑만이 차넘치고 사업성과도 부쩍 올랐다는것이였다. 리혜숙(52살)부원은 육체적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운동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탁구는 사무원들에게 아주 적합한 체육운동이라면서 탁구를 치고나면 몸이 거뜨하고 일에서 성수가 난다고, 이제는 하루라도 탁구를 치지 않으면 허전하다며 웃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탁구결승경기는 계속되고있었다. 과연 오늘의 승부는 어떻게 되겠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경기에서 승부는 있을지언정 이들의 체육열의에는 알자리, 뒤차리가 따로 없으리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미림지구에 승마바람이 분다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에 미림승마구락부란 말이 친근하게 자리잡은 때로부터 적지 않은 나날이 흘렀다. 이 나날 사회주의생활의 웃음꽃을 더해주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변졌다.

승마바람이다. 추운 겨울철인 요즘에도 미림승마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있다.

정갈하게 꾸러진 토사주로며 잔디주로, 볼수록 유정하게 안겨오는 정각이며 특색있는 천막휴식장, 훌륭한 형상된 명산의 기암괴석... 미림승마구락부의 야외풍경은 이채롭게 안겨온다.

주로를 따라 말라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마수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경쾌한것인가. 모든것을 일구어놓을듯 모질게 불어치는 찬바람을 맞받아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려가느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함께 말을 타고 광야를 내달리는듯 한 심

정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가하면 지붕으로 파스한 햇빛이 흘러들고 실내에도 도도 알맞출하게 보장되고있어 겨울철의 추위를 전혀 느낄수 없는 실내승마훈련장은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이 숙련을 하느라 흥성인다. 편리하게 꾸러진 훈련장의 내면에 거울까지 설치되어있어 누구나 마음껏 말타기를 배우며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쳐보기도 한다.

훈련장이 좀다하게 손님들을 태우고 경쾌하게 달리는 말들의 애청 또한 각각이다. 류경, 은방울, 목란, 화성, 등대, 이갈...

미림승마구락부의 단골손님으로 불리우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사는 리일령은 승마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을 타고 주로를 달리고나면 쌓였던 피로가 씻은듯이 사라지고 담이 커질뿐 아니라 생활에 대한 회열과 랑만에 넘쳐 일에서 더욱 성수가 난다고 기

쁨에 넘쳐 말하였다.

한영심봉사원은 말을 어릴적부터 타면 몸의 균형을 잘 잡을수 있고 지휘능력도 키울수 있다. 대담성과 용감성을 자랄수 있을뿐 아니라 말타기를 통하여 온몸운동을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건강에 아주 좋다. 허리근육이 발달되는것으로 하여 추간

판탈출증을 비롯한 병을 예방할수 있다고 하면서 미림승마구락부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두번째엔 계속 온다고, 지금까지 승마봉사를 받은 손님들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들중에는 청년대학생들도 있고 평양강철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며 가정부인들, 나 어린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말을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지만 봉사원들의 방조속에 누구나 말타는 요령을 인차 터득한다는 것이다.

봉사원들의 설명을 하나하나 새기며 말타기를 꾸준히 하면 청년들인 경우에는 한주일이면 어지간히 말을 자유롭게 다룰수 있다니 험기왕성한 시절에 누구든 승마의 세계에 뛰어들고싶지 않나.

그래서인지 추운 겨울철에도 미림지구에 일어변지는 승마바람은 잦아들줄 모른다.

본사기자 홍범식

한해치고 제일 추운 1월이지만 대중강반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은 한겨울의 추위로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연일 흥성이고있다.

뽕뽕 눈바람이 불어치는 바깥과는 달리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여기 실내물놀이장은 완연한 여름철이다.

실내온도가 25~27℃, 수조안의 물온도가 30℃인 실내물놀이장은 맑은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로 호성이다.

이곳 물놀이장의 리영심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추운 겨울임에도 물놀이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요즘은 방학이어서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있다고 말하였다.

뽕뽕트라스형식으로 특색있게 지붕을 처리하여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친듯 한 실내물놀이장은 말 그대로 웃음의 바다, 행복의 바다이다.

높이가 20m인 물미끄럼대의 정점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혼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청년들, 한번 타보고는 성차지 않는지 또 타겠다고 달려가는 장난꾸러기들, 그런가하면 미끄럼대에서 지쳐내리다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곤두박질하여 웃음판을 펼쳐놓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에서는 물속에서 초음

1월의 물놀이 풍경

파치로를 하는가 하면 수영경기를 하는 자기편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여념이 없는 청년들도 있다.

동화그림에서 나오는 커다란 《개구리》입에서부터 좋아라 물속으로 미끄러져내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종지만 폭포마냥 떨어져내리는 덕수

를 맞으며 끝없이 웃음발을 터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흥그러움을 자아낸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물놀이장에는 파도수조도 설치되어있어 해수욕경도 볼수 있다.

썩- 처질책... 섬없이 물갈기를 날리는 파도물속에



따사로운 인민적시책이 차넘치는 조선

나이제리아단체 우리 나라를 소개

사람들이 살고있는것과 같은 훌륭한 집을 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집이 없어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수다한 서방에 비해볼 때 조선의 현실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것이다.

또 하나의 특유한 현상은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당당한사를 두고있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담당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에게는 돈많은자들이나 둘수 있는 담당의사를 평민들이 무료로 두고있다는 사실이 도

무지 리해되지 않을것이다. 조선에서는 또한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나라에 맡기고 있다.

2012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

그것이 무료라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뿐 아니라 대학, 박사원에 이르기까지의 고등교육도 역시 무료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주신 수령들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령도자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

같은 사람들이 실업을 모으며 녀성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것은 조선식사회주의가 근로대중이 주인이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제도이기때문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되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

는것이 조선인민의 정신적 특질이다.

치료비, 집값, 세금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두운 그늘이 조선에는 없고 따사로운 햇빛과도 같은 인민적시책만이 차넘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세계의 관심:조선관광》이라는 제목의 글은 우리 나라에서 관광업발전예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사기자